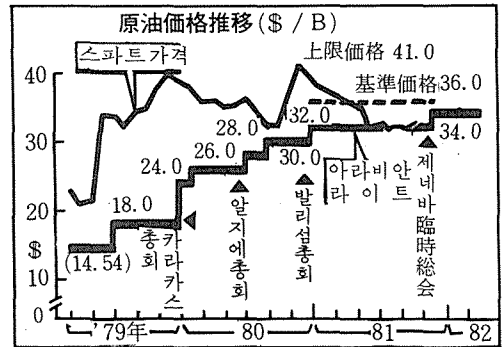




新秩序의 原油價格

OPEC임시총회가 全般的인 原油 價인하를 뜻하는 油價單一化에 合意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原油主輸 入先인 사우디는 배럴당 2\$ 인상함 으로서 우리나라는 결국 11.5%의 油 價인상要因을 안게되는 것이다.

OPEC(石油輸出機構)는 難産끝에 原油價格單 一化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OPEC臨時總會의 결정은 基準原油(사우디 아라비 아의 아라비안 라이트)의 가격을 배럴당 2 달러 인 상하는 대신 高價格適用國의 가격을 1~3 달러 인 하하여 原油기준가격을 배럴당 34달러로 單一化하 고, 새로운 基準油價를 82년말까지 凍結하기로 합 의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搖動쳐 오던 石油情勢는 당분간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 소비국 들은 새로운 石油危機의 긴박감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OPEC臨時總會가 전반적인 原油價인하를 뜻하는 油價單一化에 합의했다고 하 더라도 우리의 原油 主輸入先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배럴당 2 달러 인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결국 11.5 %의 油價인상要因(動資部分分析)을 안게 되어 또 한 차례의 國內油價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름든 이번 OPEC臨時總會의 합의로 74년초의 이란革命 이후 34개월간에 걸쳐 계속되어온 OPEC 價格체계의 大混亂은 일단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그러나 이 「34個月의 斷層」은 OPEC内部에 예상이 상의 왜곡과 약점을 노출했다.

첫째, 이번 決定으로 리비아, 알제리가 배럴당 2 달러, 나이지리아가 배럴당 3 달러의 GSP(政府 公式販賣價格) 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OPEC內 강경파국가들은 「가격 인하는 石油의 供給過剩 때문이 아니라 사우디 기준으로 또 다시 統一價格을 형성하려는 長期的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政策때문」이라고 사우디에 대한 不滿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産油国간의 内部対立이 表面化된 점이다. 지금까지 아프리카産油国은 배럴당 40~41 달러線에서 보조를 맞추어 왔으나, 최근 나이지리아가 減産에 따른 石油收入의 감소로 外貨사정이 악화되자 輸入판매로 전환, 배럴당 34달러 50센트까지 인하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合意된 새 價格에서도 나이지리아는 리비아, 알제리原油보다 1달러가 싸게 價格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째, 이란-이라크戰爭이 長期化되면서 OPEC의 協調關係는 저해받기 시작했다. 지난 8月の 臨時石油相會議가 決裂된 것도 이라크의 카림 石油相

의 調整案에 대해 이란側이 전면거부의 자세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지금까지 OPEC 創設會員国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우디와 강경파 사이의 조정역을 수행해온 베네수엘라가 지난 8月の 石油相會議 이후 회원국간의 調整보다 国益最優先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온건파의 기수였던 베네수엘라의 變身은 OPEC의 波亂要因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OPEC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에도 「34個月의 斷層」은 새로운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 石油相은 지난 8月の 石油相

原油價格 調整內訳

(單位 U\$ / Bbl)

産油国	油種	從前價	調整價	調整幅	施行日字
사우디 아라비아	Arab. Light	32.00	34.00	+2.00	10月 1日
	Arab. Berri	33.52	35.60	+2.08	
	Arab. Medium	31.4541	33.00	+1.5459	
	Arab. Heavy	31.00	31.50	+0.50	
쿠웨이트	Kuwait	35.50	33.00	-2.50	11月 1日
이란	Iranian Light	37.00	34.60	-2.40	11月 1日
	Iranian Heavy	36.00	33.40	-2.60	
	Aboozar	34.00	31.40	-2.60	
U. A. E	Murban	36.56	35.70	-0.86	11月 1日
리비아	Zueitina	39.90	37.50	-2.40	11月 1日
	Brega	40.00	37.50	-2.50	
	Bu Attifel	39.22	36.82	-2.40	
	Es sider	39.68	37.28	-2.40	
	Sarir	39.30	36.90	-2.40	
	Amna	39.20	36.80	-2.40	
Sirtica Blend	39.68	37.28	-2.40		
알제리	Saharan Blend	40.00	37.50	-2.50	11月 1日
	Zarzaitaine	40.00	37.50	-2.50	
카타르	Dukhan	37.42	35.65	-1.77	11月 1日
	Marine	37.23	35.50	-1.73	
베네수엘라	Ceuta	35.58	34.58	-1.00	11月 1日
멕시코	Isthmus	34.00	35.00	+1.00	11月 1日
브르네이	Seria Light	37.10	36.10	-1.00	11月 1日
	Champion	36.50	35.10	-1.40	

會議폐막후의 記者會見에서 「2년전에 提案했던 價格決定시스템이 合意된다면 현재의 原油價格은 배럴당 28달러이하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소비국의 石油離脫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石油의 소비절약과 代替에너지 開發은 선진공업국 共通의 課題로서 80년대 후반에 가면 대규모적인 國際協調가 기대되고 있어 이것이 OPEC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사우디 등은 우려하고 있다.

또 OPEC가 계속 原油價格인상을 추구해온 결과

멕시코, 英國, 美國 등 非OPEC의 석유생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自由世界 전체의 原油供給에서 차지하는 非OPEC産油国の 비중은 47%까지 급상승하고 있다.

회의가 열릴때마다 内部對立을 보여온 OPEC는 드디어 價格引上과 인하를 혼합하여 異例적으로 가격조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란革命에 便乘한 대폭적인 가격인상에 따른 결과로서 OPEC는 앞으로도 갖가지 형태로 그 代價를 치루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